

금 42개 메달 받...혼영 김서영·배영 임다솔 도전

알고 보면 더 재미 있는 세계수영대회

⑥ 경영

경영 종목의 경기는 다음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볼 수 있다. 경영은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혼영, 자유형 릴레이 등 42개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가리는 종목이다.

경영은 50m 단거리부터 1500m 장거리 등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물 속에서 '인간 어뢰'가 누구인지 가리는 경기가 숨 가쁘게 펼쳐진다.

최초 대회는 1837년 영국에서 개최됐다. 1908년 FINA(국제수영연맹)가 설립되고 1973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영이 주 종목이 됐다. 1896년 1회 올림픽 첫 수영 챔피언은 헝가리의 알프레드 하요스다.

경영에서 주목할 광주·전남 출신 및 소속 선수로는 광주시체육회 백수연과 여수문수중 김민섭이다.

한국 평영의 간판 백수연(여·광주시체육회)은 지난 2005년 6월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그는 최근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 일반 평영 200m, 100m 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백수연은 "2017년 부다페스트세계수영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결승까지 진출하지 못했다"면서 "흠 이점을 살려 부다페스트에서 기록한 2분26초37보다 향상된 기량으로 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중학생인 김민섭(여수 문수중 3년)은 포스트 박태환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 200m에 출전해 쟁쟁한 실업 선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자유형·배영·평형·접영 등 50m~1500m까지 42개 종목 지역 출신 백수연·김민섭 주목

김서영과 임다솔도 주목받는 선수다. 김서영은 지난해 8월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2분08초34를 기록하며 당시 세계랭킹 1위 오하시 유리(일본·2분08초88)를 제치고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그는 올해 광주와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FINA 챔피언스 경영 시리즈' 1, 2



백수연 김민섭

차대회 개인혼영에서 연이어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서영은 최근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해 2관왕을 하면서 광주 수영대회에 두 종목 출전권을 따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넘어 2020 도쿄올림픽에도 유력한 메달후보다.

배영의 신예 임다솔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다솔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과 지난 5일 동아수영대회에서 연이어 배영 100m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한국 배영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수영 황제로 등극한 미국 남자대표 카엘럽 드레셀과 중국의 쑨양도 눈여겨 볼만하다.

카엘럽 드레셀은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7관왕에 오르며 마이크 펠프스(미국)의 뒤를 이어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금지약물 복용 경력이 있는 쑨양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에 대회에 참가한다. 부다페스트 2관왕인 쑨양이 광주대회 출전을 발표하면서 수백여명의 중국팬들은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역대 금메달 순위는 1위 미국 479개, 2위 독일 228개 3위 호주 200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백수연이 지난 2017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평영 200m 준결승에 출전해 역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 수영대회 개최식 특별교통대책 추진

시내버스 증차·임시주차장 운영 터미널 등 연계 셔틀버스 운행

광주시는 오는 7월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개최식에 200여국 인원·

선수·미디어 관계자·일반 관람객 등 5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경찰 포함 총 175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개회식장 주변 교통소통·통제는 광산경찰서의 경찰 인력이 담당하고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모범운전자회는 개회식장 주변에서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하기

로 했다.

관람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개회식장 주변 공영주차장과 광주소방학교,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에 95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별도 운영한다.

다른 지역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광천터미널과 광주송정역을 각각 연결하는 셔틀버스 10대를 별도로 운행한다.

개회식이 끝나는 오후 10시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8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증차해 배차 간격도 단축한다.

교통혼잡 정리를 위해 개회식장 주변 간선도로와 전·출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계도와 단속을 시행한다. 송상진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 누리집 등에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계획, 시내버스 증회 운행 등 이번 교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개회식장 주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5장에서 '할랄' 까지...각국 음식 맛보기

100명 초청 선수촌 급식 품평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들은 광주를 대표하는 '5미(味)'부터 '할랄' 음식까지 세계 각국 음식을 맛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미디어촌 식당에서 급식 시식·품평회를 열었다.

지난 1차 품평회 지적사항을 개선해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조영록 조직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직위와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품평회에는 광주체고 수영선수 41명이 참석해 선수촌 급식을 직접 맛보고 평가했다. 오는 7월 5일 선수촌 개촌식과 함께 각국 선수단

의 입촌이 시작되면 수영대회 선수촌과 미디어촌에서는 100가지 음식을 하루 세끼 선보일 예정이다. 선수촌은 하루 3끼, 미디어촌은 조식 1끼만 제공되며, 한식과 중식, 일식, 유럽식 등 각국 음식을 비롯해 이슬람 문화에 맞게 조리된 '할랄' 음식도 제공한다.

한식 중에는 광주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특성을 반영해 육전, 떡갈비, 주먹밥 등 '광주 5미' 음식도 포함됐다.

선수촌 식당은 급식 외에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핫도그, 견과류, 바나나, 주스 등으로 구성된 고티로리간식도 경기장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날 2차 급식 시식·품평회에서 개선점을 최종 점검하고, 대회 개막을 앞둔 오는 7월 5일에는 언론사 등 300여명을 초청해 마지막 급식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김형호 기자 khh@

총리부터 한류스타 까지... 릴레이 응원



이낙연 총리 응원 릴레이 영상

이낙연 총리·박신혜·송가인 등 성공 개최 기원 영상 메시지 공개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20여일 앞두고 릴레이 응원 영상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조직위 페이스북(공식 계정)을 통해 국내 저명인사들이 촬영한 수영대회 성공 개최 기원 릴레이 영상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번 릴레이 영상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직위원장이 이응섭 광주시장, 홍보대사 박태환, 안세현 선수, 국악인 오정해, 영화배우 성훈 등이 참여한다.

또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기성용을 비롯해 배우 박신혜, 가수 송가인 등 이 지역 출신 체육계 인사와 연예계 인사들도 성공 기원 릴레이 영상 메시지에 동참한다.

이번 수영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이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꼭 성공하리라 믿는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올 여름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수영축제를 만끽하며 즐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성용 선수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수영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국민들도 대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응원했다.

조직위는 이번 수영대회 성공 기원 메시지를 조직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일부터 공개하며, 이후에도 국내 저명인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꾸준히 공개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20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시 일대와 여수 등에서 개최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벽 차단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해외 여행을 다녀올 때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을 가져오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지 말아 주세요.

해외여행 후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1일부터).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현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마시고, 귀국 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세요.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잘 알려주세요.

돼지가 고열·폐사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주세요.

☎ 신고 전화 1588-9060/1588-406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사람은 감염되지 않음)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여 발생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현재 예방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